



### 우리시대 참스승

### 관인초등학교 교장 강재일

# 학생의 재능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학생들을 배꼽 빠지게 웃겨라.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해라. 내일 다시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라”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해 주기를 바란다는 관인초등학교 강재일(56)교장은 ‘오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는 즐겁게 공부하고 있다’는 말이 학생들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시민교육에 역점을 두고 학생들이 인사를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받아주는 교장으로 아이들과 거리를 두지 않아 “교장선생님이 감기 드셔서 되겠어요? 빨리 나오셔야죠”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항상 학생들 앞에는 정장차림을 보여주고 교사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격려함으로써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강 교장은 전북 군산에서 출생하여 군산 중앙초, 군산중, 군산고, 군산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학과를 졸업했다.

1971년3월1일 전북 장수 장계 명덕초등학교에 교사로 첫 부임하여 1986년 경기도 파주 법원초등학교, 고양시 고봉초에서 근무하다가 고양시 장춘초, 한수초에서 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교장으로 승진하여 2004년9월 관인초등학교에 부임했다.

비록 시골학교이지만 학생들이 마음껏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지난 2년 동안 관인초등학교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을 보람 있는 교육성과로 보고 있다.

특히 경기도 지정 시범학교 운영 학교평가에서 담당하 1위를 차지함으로써 강 교장의 학교경영능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사랑과 꿈이 가득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강 교장은 학교는 오고 싶은 곳이어야 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은 보고 싶은 선생님, 나를 사



관인초등학교 교장 강재일

안된다. 초등교육은 인간성 교육이다. 언론에 살인사건이 보도되고 국회의원이 싸우는 모습이 지면을 장식한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부모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식도 선생님을 존경한다.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부모가 집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게 된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실천하고 실행하며 나가는 것이 교육이다.

강 교장은 관인초등학교의 애로사항을 지적한다. 특기적성교육 문제다. 지역에서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서울에서 모셔야 한다. 강사비가 서울시내보다 몇 곱절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은 동일하다. 국가가 나서서 농촌학교 특기적성 강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교통신도 안되는 예산으로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강 교장은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육상공인심판 2종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훈육지도자 자격증을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미술, 시청각, 체육지도 기능장을 받기도 했다.

강 교장이 지난 2년 동안 관인초등학교에서 이룩한 교육성과로는 관인초등학교 연극반을 운영해 2005년5월31일 제12회 포천어린이연극경연대회에서 대상(포천시장상), 그해 6월19일 2005어린이연극제에서 대상(경기도지사상), 11월13일 제14회 전국어린이연극경연대회에서 은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해 관인초등학교를 전국에 알리기도 했다.

또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개최된 제3회 포천시체육회장기 유소년축구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해 강 교장의 학교경영철학이 큰 성과를 거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관인초 유소년축구대회 한음리그 우승 성과

관인초 유소년축구대회 한음리그 우승 성과를 축하하는 선생님, 나를 인정해주는 선생님이어야 한다. 또 학교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곳, 학생은 노력하는 학생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본교육충실로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강 교장은 관인지역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인성교육이 잘돼 있다고 자랑한다. 그것은 지역사회가 안정돼 있고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아예에 하기로 한 것은 정성 들여서 잘 하자”를 생활신조로 삼고 있는 강 교장은 “교육은 한 건 주어야 한다.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과 같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교육이다. 생활체인 인간을 교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정책도 하루아침에 뒤엎으면

관인초 유소년축구대회 한음리그 우승 성과를 축하하는 선생님, 나를 인정해주는 선생님이어야 한다. 또 학교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곳, 학생은 노력하는 학생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교사 탐구

### 송우중학교 교사 이화성

“지금 나를 구성하고 있는 표면적인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표면적인 자아의 이면에 심층적인 자아가 존재함으로 확인하고 진정한 나를 삶의 주인공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사랑과 평화, 행복이 깃들여진 진정한 나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점검하고 재설계 하도록 하고 나아가 참 나의 실천범위를 친구, 가족, 사회로 넓혀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 나를 세상 전체로, 우주 전체로 확장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송우중학교 이화성(41)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아탐색프로그램의 편성을 5단계로 설명한 내용이다.

1989년9월 경기도 안성여자고등학교에 교사로 첫 부임한 이화성 교사는 강원도 횡성군 성북초등학교, 횡성중학교, 횡성고등학교, 강원대학교 국민운리교육학과를 졸업했다.

밝고 청순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교사가 되었다는 이 교사는 학생들이 성장하여 사회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해 나갈 때 가장 큰 보



송우중학교 교사 이화성

## 인성교육 위한 자아탐색프로그램 개발 교육

###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자’를 급훈으로

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안성여자고에서 1992년 의정부서중학교, 1999년 포천중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3월1일 송우중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부임하여 도덕과목을 교육하고 있는 이 교사는 포천중학교 부임당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주력하고 주5일 수업제 시범학교와 평생시범학교 운영의 중책을 맡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힘썼으며 송우중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 교사는 1999년 교사들의 연구단체인 포천통일교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통일의를 함양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2000년~2001년 경기도민주시민교육연구회 포천군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증진에 기여했다.

지난해 포천중학교의 평생교육시범학교 운영담당자로 학생·학부모에게 시범학교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범학교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평생교육부서 편성, 참여인원 구성 등 철저한 업무처리를 하기도 했다.

이 교사가 연구한 자아탐색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나’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내가 나를 세우는 것임을 깨닫고, 나를 더욱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뜻을 세워 주위에 선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내면화를 통해 자신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일으켜 세우는 원리를 깨닫게 되고 나아가 타인과 교감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내가 존재하기까지 근원이 된 가족과 이웃, 자연, 우주의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고 사랑을 나눔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 교사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자’를 급훈으로 하는 1학년4반 담임을 맡고 있다. 급훈의 의미는 나만 생각하지 않고 같이 살아야 하는 연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교사는 포천중학교에서 실시한 학부모초청 연구수업을 통해 나라사랑하는 방법을 외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우리나라도 애국심을 갖고 살아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교사는 주로 대화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방식의 교육이다.

도덕과목이 쉽지만 중학생들에게는 정리가 안돼 어려울 때가 있다. 학생들의 개념정리를 돕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되도록 비판하지 말자”를 생활신조로 삼아 긍정적으로 보고 웃으면서 살고 있다는 이 교사는 인간성 교육을 강조한다. 인간성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실력향상이 뒤따라야 한다.

송우중학교 동료·선배·후배 교사들은 반감을 가진 교사가 한 분도 없다. 서로 이해하고 늘 웃으면서 생활한다.

이 교사가 실시해온 자아탐색프로그램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15차시로 구성돼 있다. ▶나를 알아주세요!(친구들이 전해줄 수 있도록 서로를 소개할 기회를 제공한다) ▶나만의 향기 찾기(나의 키워드 할 장롱과 졸업 단장을 알아본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지금까지의 인연들을 생각해 내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내 안의 나와 만나기(내가 나와 대화해 보면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한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내가 진정 원하는 행복과 평화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내 마음 일으키기(마음속의 정원을 만들어보고 마음의 꽃대로 만들어본다) ▶나무가 자라듯이(과연 나는 어떤 가치를 펼 것인가? 미래를 그려본다) ▶좋은 습관 들이는 법(행동을 통해 자신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기법) ▶환한 미소 갖는 법(가장 행복한 내 모습을 연습을 통해 미소 배게 한다) ▶우리는 원래 하나(소중한 우정들이 담겨 있는 사람들끼리 예의를 표해 본다) ▶내 안의 사랑 퍼주기(사랑의 전달법 등의 체험을 통해 사랑은 먼저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사랑의 출발, 가정(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사랑 거리를 기획해 본다) ▶새롭게 보는 따뜻한 세상(자연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 본다) ▶나는 흥인인(세상에 큰 사랑을 베풀려는 의지를 가져본다) ▶미리 쓰는 나의 미래(변화된 내가 살아갈 미래를 표현해 본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나의 선생님



김예슬 포천여중 2년

이 글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방과후 시범학교인 포천여자중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중 지역사회의 연계 프로그램인 ‘논술반’에서 글쓰기 주제로 제시된 존경하는 나의 선생님에 대해 존경의 요소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을 본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요소들 3가지 이상 제시할 것을 주문한 내용에 대해 쓴 글이다. (편집자주)

큰키에 갈색머리, 눈썹엔 짙은 다크써클을 어딘가 모를 어색함과 설렘으로 선생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었을 때 담임선생님으로써, 내가 모든 일에 있어 그 최종적인 결승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서지연 선생님. 서지연 선생님이야말로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다.

그래서 3.4년 넘도록 서로 연락도 주고 받고 만나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궁금할 것이다. 물론 사람을 특정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 자체가, 분위기가, 모습과 같은 모든 것이 좋지만 5가지 이유로 설명해보겠다.

첫째, 학생들, 즉 우리들을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

다른 많은 선생님들도 물론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지만 서지연 선생님께서는 결코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속에서부터 온통 학생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신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그러하다. 언제나 모든 집중화서는 우리들이 되며, 우리들이 조금만 아프기라도 하면 선생님께서는 벌써 지옥에 계시고, 우리들에게 기쁘고 기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선생님은 벌써 천국을 활활 날아다니신다.

마지 친부모님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손발, 발발 모두 보살펴주시는 진절하신 분이다. 그리고, 무작정 ‘잘했다, 나쁘고 못해도 잘했다’는 절대 아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땐 지적해주시고 고치게끔 타이르시고 가끔은 엄하게 혼내기도 하신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는 안다.

그 엄함의 속에는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의 따뜻한 엄마가 되어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마음이 넓으시다. 선생님은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른 체구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짝짝 차계시다.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님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 주시고, 큰 아량, 넓은 생각을 표현하여 베풀어주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선생님에 대한 칭찬은 그칠 줄을 모른다. 그래서 인기 또한 좋으시다.

자신만 많이 가지려는 욕심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관용의 자제이시다. 남을 아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감동받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언제나 한발짝 물러나 생각하시기 때문에 양보가 넘쳐 나신다. 현대 사회에서 양보가 자취를 감춰 가는 가운데 나에게 신선한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더욱 가슴깊이 그 모습이 떠오른다.

셋째, 우리들을 지혜의 늪에 빠뜨려 주신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남에게 의도와 목적이 맞게 전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그 일이라면 누구 못지 않은 실력을 가지고 계신다.

초등학생때는 호기심은 많지만 지식은 아직 많지 않고 공부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는데 선생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며 지식, 지혜들을 전달해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은 선생님의 수업만을 기다리곤 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쌓아주시고 어렵지만 최대한 쉽도록, 밤새 연구해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풍덩!’ 지혜의 늪으로 우리를

던져주시는 늪의 대장 서지연 선생님! 그 밤샘 노력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처음 접하는 공식 교육을 흥미와 재미, 설렘으로 느끼게 해 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연속일 따름이다. 지혜와의 친근감을 갖게 해주신 선생님이 존경스럽다

넷째, 우리에게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 아직은 어려서 세상의 이치와 예절, 올바른 가짐을 몰랐던 때 인자라, 버릇없어지기, 마음이 나빠지기 싫상이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해하셔서 언제나 우리 앞에서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 인간의 인내력, 친절, 편견극복, 생명경시, 이웃사랑, 자연사랑 ... 그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며 참인간으로써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 사람보다는 된 사람이 되라고, 인간의 품성과 됴됨이를 중시하셨던 선생님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생각난다. 마지막으로, 첫 인상이 너무 좋으셨다. 마르신 체구에 약간의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하지만 조금후의 선생님의 보조개 미소를 보자. 그런 생각은 씩사라지고 너무 아름다우셨다.

같은 여자이고, 너무 예쁘셔서 그야말로 호감! 이었다. 반받고 싶은 미모~ 아무튼, 비록 지금은 자주 만날 수 없었지만, 연락도 자주 하고, 자주 찾아뵙고 선생님의 모습을 잊고 싶지 않다. 다시말해, 선생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를 넓혀야 할 것이다.

‘마당발’이라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어울려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또, 많은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책은 인류의 지식이 가득한 보물창고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책을 통해 지혜를 넓혀야겠다.

마지막으로 웃는 얼굴, 긍정적 사고 갖기, 모든 마음은 긍정적 사고로부터 나와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언젠가는 나도 선생님과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날을 기다릴 것이고 그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 운중생의 미국어따라가기

23. 여기에 앉으십시오.

Why don't you have a seat over here?

왜안앉혀버시옵니까?

예, 감사합니다.

Oh, thanks.

오, 감사합니다.

24. 제안 사항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ny suggestion?

두우해배너씨제센?

없는데요.

Not really.

넛워일리

25. 언제 한번 만났으면 합니다.

I hope to have a meeting with you somewhere.

이이휴투해버미링위유 씬웨어

다음주 토요일을 비워 두겠습니다.

¡ I'll leave next Saturday open.

아일리브넥스세러데이 오픈



문의: 윤중성 (017-723-4977)cdlyoon@nate.com

## 의정부에 미용고등학교 개교

### 미용봉사단 결성 사회봉사활동도 나서

경기미용고등학교가 지난 16일 의정부시 가능2동 745-30번지에서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관내 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가졌다.

경기미용고등학교는 2005년10월 31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경기미용고등학교(3년제)로 설치인가 되었으며 미용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인재들을 위해 세계 속에 경쟁력을 갖춘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제공하고 배움의 기회를 상실할 일 부 유예 학생들에게 전문 분야의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에서 필요 인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은 물론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고2년차 이후에는 실전과 같은 실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교내 미용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관내 지역에 주1회 정도의 미용봉사단을 조직하여 경찰서 및 군부대, 복지관 등 봉사활동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미용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난 5월 교육인적자원부 후원 전국 학생 미용 경진대회(신성대학 주최)에 참가하여 내일 케어 부문, 일반 퍼머넌트 부문에서 41명의 입상자를 수상한 바 있으며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각종 대회 참가 및 미용 관련 페스티벌에 참가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미용고등학교가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을 향상시키는 학교로 발전할 것이며 지역 경제에도 이익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미용고등학교가 지난 16일 의정부시 가능2동 745-30번지에서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관내 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가졌다.